

중국 운남지역 소수민족 바지 전개

김혜영* · 조우현⁺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전공 교수⁺

Development of Types of Trousers of *Yunnan* Minorities in China

Hye-Young Kim* · Woo-Hyun Cho⁺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투고일: 2010. 1. 10, 심사(수정)일: 2010. 8. 27, 게재확정일: 2010. 10. 5)

ABSTRACT

Yunnan, where twenty-six minor ethnics live, is located in Southwest part of China. They have preserved and developed their folk costume, artcraft, music and dance in their peculiar way with natural and cultural surroundings. So, *Yunnan* is known as a living folk museum. It's worth examining how climate and circumstances change has affected certain differences of dress shape in same ethnic. Research into costumes of minor ethnics can contribute to the study of origin of the trousers, as this group of people have well succeeded the basic form of trousers through their cultural history and everyday life. This study, at first, investigates geographical surroundings of each minor ethnic group, and figures out the style of all trousers by measuring the each size, then compares design · color · pattern and fabric. The origin of trousers examined by formative characteristics has been classified and comparatively studied. The study materials are twenty-three trousers selected from in *Yunnan* Folk Museum as well as other relevant literature records. This study suggests that one can examine the type of human culture through the forms of costume which reflects folk custom · geography · economy etc. This, in turn, can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for other studies, and in particular, for the study of origin and structure of the trousers.

Key words: *yunnan*(운남), trousers(바지), development of types(유형전개), minorities(소수민족)

I. 서언

중국의 운남지역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광대한 지역에 분산 거주하며 고유의 독특한 전통 풍습을 계승하고 있다. 그 중 26개의 소수민족은 중국 서남부의 운남성에 분포되어 자연환경적으로 민족복식, 민족수공업, 민속가무 등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통민족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남성의 다양한 민족특성은 의생활방면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전통 복식의 접근이 용이하다.

기후와 지리환경은 생산과 생활방식에 변화를 주고 여기에 민족 심미안에 영향을 주어 민족의 복식 문화가 형성된다¹⁾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러 복식 현상 중 생활양식과 밀접한 구조를 갖는 하의에 주목하여 다양하게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바지를 조사하여 형태를 파악하고 유형별로 분류한 후, 그 기원적인 구조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포되는 바지의 전개과정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소수민족 바지의 고찰은 바지의 형성요소와 그 전개과정을 계통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구체적으로는 민족별로 바지의 실물조사를 통하여 형태를 파악하며, 구성·색채·문양·소재를 조사한다. 연구 자료는 2003년 5월 용인 민속촌에서 전시된 운남민족박물관 소장의 소수민족 복식 중 바지류 23점을 실측 조사한 것으로, 모두 12개 소수민족의 바지의 조사로서 운남거주 소수민족의 전체의 50% 분포권에 해당된다. 즉 남자복식 7습과 여자복식 16습 가운데 하니족(哈尼族) 4점·장족(藏族) 3점·이족(彝族) 4점·수이족(水族) 2점·요족(瑤族) 2점·나시족(納西族) 1점·리수족(傈僳族) 1점·몽골족(蒙古族) 1점·바이족(白族) 1점·데양족(德昂族) 1점·프리족(普米族) 1점·라후족(拉祜族) 2점으로 모두 23점이다.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바지형성과 전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추후 자료의 보충에 의하여 보다 확연한 바지 형성의 전반적인 계보가 규명되리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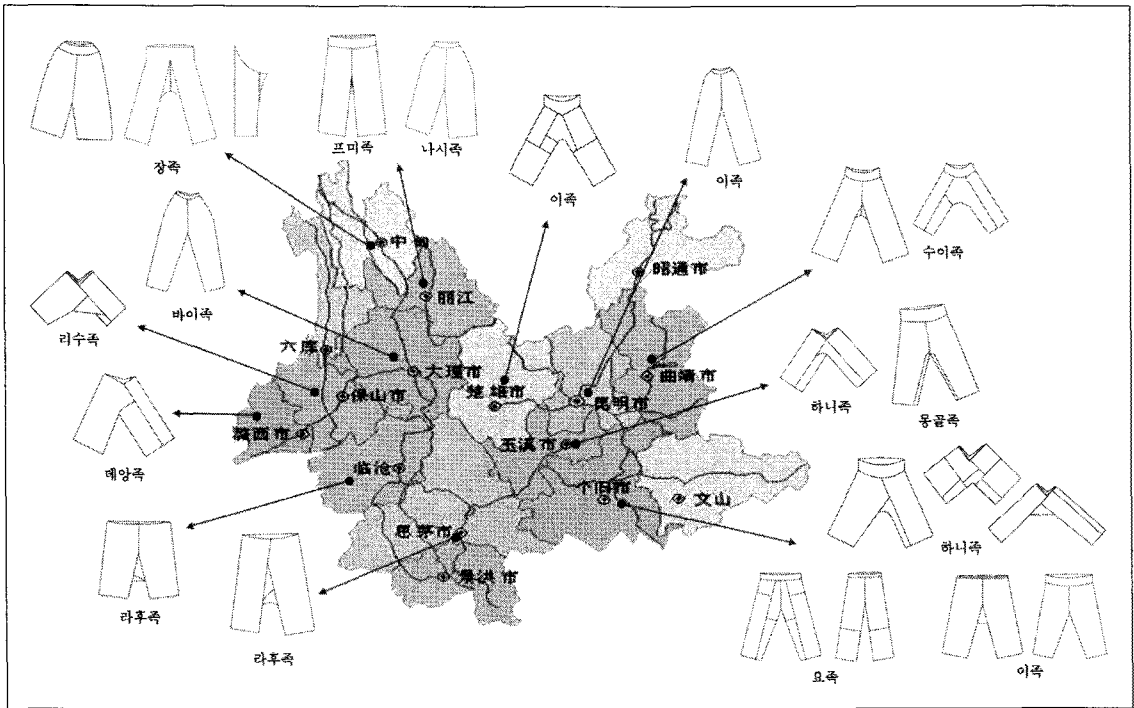
II. 운남의 지형적 특성과 바지의 기본형성

중국 서남지역에 위치한 운남성이 중앙왕조에 의해 통치되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221년 진시황대부터이다.²⁾ 운남은 “一山分四季, 十里不同天”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후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역사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문화의 보고이기도 하다.³⁾ 운남지방의 대부분은 고원·분지·협곡 등이 한데 어우러져 매우 험한 지형을 형성⁴⁾하고 있으며 자연지리적 환경이 다수의 하천이 발원하고 하천들은 동쪽·남쪽·동남쪽 3면으로 갈라져 부채살 모양으로 흐르고 있다.⁵⁾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온화하나 7000m에 육박하는 매리산과 6000m에 가까운 옥룡산이 있는 서북의 고지는 냉대기후이고, 동남과 서남의 낮은 지역에 이르면 열대성 우림기후나 밀림지역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자연 기후로 민족생태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운남지역은 위도가 낮고 지형, 기후가 다양하여 열대에서 한대에 이르는 다양한 농산품을 생산하면서 각기 다른 민족이 다양한 생활환경을 보존하며 생활하고 있다.

대잡거(大雜居)와 소취거(小聚居)의 특징을 가진 소수민족의 분포가 이러한 자연적 환경과 어우러져 운남의 다민족 공동체적인 지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림 1>⁶⁾은 운남지역 바지의 민족별 분포도로서 조사 자료의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다.

복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조우현, 박춘순⁷⁾은 세계 각국의 의복은 그 지역에 의한 기후 풍토에 순응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다고 하여, 즉 복식의 구성은 생활문화로 인해 제도과 위계를 표시, 의식과 제사에 이용하는 장속(裝束)과 직업을 구분하는 제복(制服)을 만들어 낸다. 나아가 인류가 생활하는 환경과 지형, 생업에 맞추어 필연적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후조건과 지형적인 특징을 살리는 생활방식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작업을 통해서 물자를 획득하여야 하기에 그 일을 위한 효율적인 의복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이런 논지로 접근 시 바지의 구조



〈그림 1〉 운남지역 바지의 민족별 분포도

는 기능적인 목적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의복형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신체에 하부를 덮던 바지는 요부에서 착용되며 양 바짓가랑이가 있고 복부와 둔부를 가릴 수 있는 하반신 의복을 지칭한다. 바지의 발생을 자연환경적인 요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이것이 점차 변화, 발전하여 처음에는 북방계 유목인의 가죽을 사용한 투고(套袴)형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직물이 개발되면서 바지의 폭이 넓어지고 그에 따라 가랑이가 연결되는 무가 발생하여 현재의 바지의 모습이 되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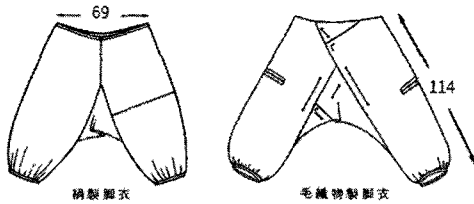
기원전 바지의 착용 민족을 살펴보면, 동쪽으로 몽고고원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란 대항아·카스피해와 흑해의 북부연안·시리아·아라비아·아프리카의 일부까지 미친다.¹⁰⁾ 중국은 은(殷)대의 은·옥·동·도제용 등 유물을 통해 상당수의 인물상이 바지를 착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 은나라 이전으로 본다.¹¹⁾ 또한 최초의 스키타이인의 바지와 비교하면 그 기본적 형태는 직령좌입 단상의하고(左裨直

領 短上衣下袴)의 이부식(二部式)구성을 이루나 두 문화권의 착용양식에는 차이가 있다. 스키타이인의 바지는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단순한 모습인데 은(殷)인의 착용모습은 시문(施文)의 양·대의 나비·좌입과 우입의 혼용·병용한 모자의 형태 등이 한층 정제된 느낌을 준다.¹²⁾

동북아시아 지역에 나타나는 바지의 가장 오래된 유물로서는 기원 1세기경의 지금의 외몽골 북쪽 Noin-Ula 제6호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 지방은 북방 기마유목민족에 속하며 또한 스키타이문화권이다. 이 스키타이 문화 범주에 속하는 노잉우라의 문화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까지의 흉노문화로서 중국이 이들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점차로 한반도로 유입¹³⁾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림 2〉¹⁴⁾의 노잉우라 출토 흉노왕의 모직·견제(絹製)바지 두 점은 모두 바지통이 약 90cm이며 바짓부리를 좁은 帶狀의 커프스형으로 처리한 바지로서 외관상으로는 두 형태가 유사해 보이나 밑위 술

기의 봉제법을 고찰하면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견제의 바지는 양 가랑이를 좌우로 대칭으로 보고 그것을 연장시켜 앞 중앙에서 만나게 한 형태로 밑위선이 앞 중심 및 뒷 중심 선상에 있으나 모직바지는 하지와 골반부위를 한 장의 포직물이나 가죽으로 다리 외측으로부터 쓴다. 나머지 부위를 다른 옷감으로 보충해주는 관점에서 형성 발전된 바지로 중심선이 사선으로 이루어져 팔자(八字)형을 이루며 골반 부위를 좌우 비대칭으로 나누고 있다.¹⁵⁾ 이 2가지 패턴 유형의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Noin-Ula 출토복식
中央コーラシア 古代衣服の研究, 2002,
p. 141(좌), p. 145(우).

세계 각 민족의 민속바지 형태를 분류한 Henny. H. Hansen¹⁶⁾은 바지의 형태를 따라서 두 다리를 수직 봉제한 형태의 경의형[genuine legging trousers], 한 장의 천을 허리에서 내려 몸의 측면에서 이어 만든 요의형[genuine breech-cloth], 앞의 두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혼합형[compound form] 3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또한 박춘순¹⁷⁾은 바지의 양식과 유형분류를 의복 변화 발달하는 요인에 의한 분류로 시도하였는데, 자연환경적인 요인으로 기후, 풍토, 지역과 사회환경적인 요인으로 생업·종교·성별·계급에 의한 구분, 구성 착용적 요인으로 성형정도·착용형태·착용방법·여밈 위치·재단형·재질·당의 유무·실루엣의 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분하여 각 소수민족 바지를 분류하였다. 운남의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변경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역사상 한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역사상 민족이동이나 둔전(屯田)·이민 등의 정책으로 인구변동이 많았던 관계로 소수민족의 거주지에도 한족(漢族)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족의 거주지에도 일부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등 이들 간의 잡거(雜居)와 총거(叢居)로 인해 교착 거주하는 형편이 없지 않다.¹⁸⁾ 이런 상호 작용으로 소수민족의 바지 형성이 이루어졌으리라 보인다.

Ⅲ. 운남지역 소수민족 바지의 형태

〈그림 1〉에 의하면 지역별 소수민족의 위치와 조사바지의 분포는 운남의 16개 지역중 노강(怒江)·조통(照通)·문산(文山)·서쌍판납(西雙版納)의 4지역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하니족(哈尼族) 4점·장족(藏族) 3점·이족(彝族) 4점·수이족(水族) 2점·요족(瑤族) 2점·나시족(納西族) 1점·리수족(傈僳族) 1점·몽골족(蒙古族) 1점·바이족(白族) 1점·데양족(德昂族) 1점·프미족(普米族) 1점·라후족(拉祜族) 2점이다. 〈표 1〉¹⁹⁾과 같이 민족별로 각각 실측, 촬영하고 도식화를 작성하였다. 색상은 인지색으로 표기하고 소재는 조직과 질감을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1. 하니족(哈尼族)바지

하니족은 남쪽으로 이주한 고대 저강인(氐羌人)을 기원으로 하며, 운남성 남부 원강(元江)과 란창강(瀾滄江) 사이의 해발 800m 내지 2500m되는 지역에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재전(梯田)의 벼농사 문화가 특히 발달하였다. 산등성이에 거주하면서 산세에 따라 벼삭모양처럼 집을 짓는다.²⁰⁾

하니족은 의복의 재질로 장청색(藏青色)의 토포(土布)의 의복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대금(對襟)의 상의를 입고 청색의 너른바지를 입는다. 여기에 남포 요대를 매고 머리는 흑포나 백포로 포두하며, 특히 노년층은 과피모(瓜皮毛)를 쓴다. 부녀의 복식은 지역적인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무령(無領) 상의를 입고 은폐(銀幣)나 뉴구(紐扣)로 장식하고 긴바지를 입는다.²¹⁾ 홍하(紅河)지역과 옥계(玉溪)지역의 하니족 바지 4점을 조사하였다.

▷ 홍하 하니족바지a

바지의 치수는 84*96*62²²⁾로 긴 바지 형태이고,

소재는 흑색의 면이다. 18*19*29²³⁾ 크기의 삼각형무 2개가 <그림 3>과 같이 1/2정도 겹쳐서 봉제되었다. 허리봉제는 시접은 안으로 감치고 그 위에 흠질을 하였으며 바짓부리는 밖으로 0.5cm 말아 박았다. 부리에는 9cm의 덧단을 뒀으며 27cm 길이의 각반을 함께 착용한다. 상의는 소매가 없는 조끼형식을 2겹 겹쳐 입고, 속저고리는 뒷길 길이가 72cm인 입령대금단의를 착용한다.

▷ 홍하 하니족바지b

홍하 하니족의 짧은 바지인 초단고(超短褲)로 크기는 35*62*54인 흑색의 면이다. 좌우가 비대칭이며 앞뒤중심의 봉제선도 다르다. 9겹의 상의와 함께 착용하며, 착용시에는 다리의 길이방향으로 앞면에 끈을 잡아당겨 주름이 생기도록 한다<그림 4>. 우리나라 제주도 해녀의 복식중의 일부인 물소중의를 연상시키는 바지이다. 바지허리는 이색의 다른 천을 이용하여 바이어스처리와 같은 형태로 감싸서 시접을 처리한 후 양쪽에 남은 바이어스의 시접을 봉합하여 여밈시에는 끈으로 이용한다.

▷ 홍하 하니족바지c

바지의 치수는 89*86*54로 긴 바지 형태이고, 소재는 흑색의 면바지이다. 한 폭이 35cm인 1장의 천으로 옆선부분에서부터 다리를 감싸고 나머지 안쪽의 사폭은 부리를 줄여서 봉제한다. 가랑이 부분에는 사각형무로 대어 착용 후 활동시의 편리함을 주고 있다<그림 5>.

▷ 옥계 하니족바지

바지의 치수는 85*102*78의 크기로 긴 바지 형태이고, 소재는 흑색의 면이다. 옷감의 폭이 26cm로 3폭을 붙이어 각각 다리를 감싸고 있다. 가랑이부분에 <그림 6>과 같이 사선으로 30cm 부분을 겹쳐 봉제하였다. 바지허리는 1.2cm 나비의 터널식으로 구성되어 여밈시 끈을 사용하여 묶는다. 바짓부리의 밑단은 시접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31cm 길이의 각반을 함께 착용한다. 뒷길길이 44cm 수준의 입령대금단의를 착용한다.

2. 장족(藏族)바지

장족바지는 3점을 조사하였고, 장족은 티벳족을 말하며 운남 동북부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의 당나라 시대부터 라마교(喇嘛教)라는“장전불교(藏傳佛教)”를 신봉하여 장족의 문화와 풍속습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장족복식을 대표할 수 있는 장포(長袍)는 특히 장족만이 착용하는 특수한 의복으로 장포(藏袍)라고 부른다. 특징은 장수(長袖)와 사령중임(斜領重衽)이며 옷길이기도 길고 품이 매우 관대하다. 장족의 거주 지구는 특별히 고한 지대이다. 주간에 기온이 올라갈 때나 작업 시에는 한쪽이나 양쪽 소매를 벗어 요대(腰帶)에 끼워 넣어 어깨를 노출하여 간편하게 한다.²⁴⁾ 연구의 자료로 장포 아래에 입는 바지 2점과 신무복(神巫服)의 투고(套褲)를 조사하였다.

▷ 적경(迪庚) 장족바지a

바지의 치수는 107*112*58이며 재질은 소재의 삼베이다. 한 폭이 60cm 인 한 장의 천으로 다리를 감싸고 가랑이 부분에는 63*36크기의 삼각형 무가 <그림 7>과 같이 2장 부착되었다. 삼각형 무는 2조각의 삼각형과 1조각의 오각형으로 연결되어 있어, 밑위 아래의 가랑이의 무는 굽로 재단되어 있다. 바짓부리는 시접처리 없이 풀어 놓았고 싹솔로 처리하였다. 바지의 허리부분은 소재가 다른 면으로 재단하여 봉제하였다. 상의는 뒷길 71cm 길이의 입령대금단의을 속저고리로 착용하고, 그 위에 뒷길 104cm 길이의 사령중임(斜領重衽) 장포(長袍)를 함께 착용한다.

▷ 적경 장족바지b

바지의 치수는 106*152*92로 긴 바지이며, 고무줄 허리 바로 아랫부분에 12cm의 폭의 요오크형식으로 봉제되었다. 소재는 인조견으로 흰색이며 무늬는 매화와 죽순문양이 직조되어 있으며, 솔기는 싹솔로 하였다. 9*32 크기의 삼각형무 2장이 <그림 8>과 같이 바지의 뒷면에 부착되었으며 앞면에는 무가 없다. 상의는 뒷길 72cm 길이의 입령대금단의를 속저고리로 착용하고, 조끼형식의 입령대금을 덧입고, 맨 걷는

뒷길 107cm 길이의 사령중입장포를 함께 착용한다.

▷ 장족 신무(神巫) 투고

바지의 치수는 91*46으로 끈으로 허리에 고정한다. 양각분리형(兩脚分離刑)으로 장족 신무복 투고(套袴)에서 보이는 허리가 없는 형태이다. 겉감은 자주색의 견이고, 안감은 청색의 면이다. <그림 9>에서 끈은 보이지 않지만, 착용시 상의의 허리벨트에 걸어 착용하도록 한다. 바지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3. 이족(彝族)바지

이족은 소산과 심곡이 많아 복잡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운남성의 서남부 고원산악지대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나 부분적인 지구에서는 목축을 겸한다. 이족은 분포지구가 광활하고 주거지역도 여러 곳으로 분리되어 있어 복식양식도 다양하다.²⁵⁾

이족의 여자는 일반적으로 환군(換裙)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은 어린 시절에 입던 바지를 성년이 되어 치마로 갈아입는 풍습을 말하는 것으로 속칭 환군(換裙) 혹은 환동군(換童裙)이라 한다. 이때 갈아입는 치마는 홍·남·흑색 등 대비가 강렬한 3색 혹은 4색의 장통(長筒)의 백습군(百褶裙)이다. 실측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이족의 복식을 살펴보면 홍하형(紅河型)은 운남 남부를 지나는 홍하지역에서 착용되며 남자복식은 입령대금(對襟)단의와 관당고(寬褶褲)이다. 부녀복식은 단의와 장고를 착용하는 양식과 장삼과 장고를 착용하는 두 가지 양식으로 나눌 수 있다. 초웅형(楚雄型)은 운남성 초웅 지역의 남녀 복식으로 대금(大襟)단의와 긴 바지가 기본양식이며, 남자는 단의와 장고를 입고 있으나 점차 서양복으로 바뀌고 있다.²⁶⁾ 실측된 복식은 홍하·초웅·곤명의 3개 지역에 분포한 이족의 복식을 조사하였다.

▷ 홍하 이족바지a

바지의 치수는 92*124*63인 흑색과 초록색의 긴 바지 형태의 면바지이다. 70cm 광폭의 천으로 다리를

감싸고, 가랑이부분에는 23.5*12정도 크기의 마름모형 사각형무가 <그림 10>과 같이 부착되었다. 바지허리는 이색천인 청색으로 1.5cm 폭의 터널식으로 구성되어 가는 끈을 넣어 착용시 용이하게 했다. 흑색 바지의 바짓부리에 초록단을 덧대었다. 상의는 뒷길길이 64cm의 소매가 없는 조끼형태의 원령대금단의에 걸은 뒷길길이 109cm의 입령대금장의를 착용한다.

▷ 홍하 이족바지b

바지의 치수는 93*116*50의 흑색과 소색의 긴 바지 형태이고, 소재는 면이다. 착용 시 다른 끈을 이용하며, 바짓부리 부분에 14cm크기의 화변이 <그림 11>과 같이 부착되어 있다. 흑색의 바지에 9cm의 허리는 이색의 면을 이용하여 홈질로 봉제되었다. 함께 착용하는 상의는 뒷길길이 68cm의 소매가 없는 조끼형태의 원령대금단의와 뒷길 108cm 길이에 앞길 61cm 길이인 입령대금의 전단후장 장의를 착용한다. 장식이 화려하게 수놓은 위요(圍腰)를 두른다.

▷ 곤명 이족바지

바지의 치수는 102*94*52인 전형적인 고무줄 바지이다. 색상은 분홍색이고 소재는 합성섬유이다. 바지허리는 고무줄로 봉합하고, 바짓부리 부분에는 <그림 12>와 같이 화변을 부착하였다. 밑위길이는 앞면이 28.5cm이고, 뒷면은 37cm로 약 9cm 정도의 차이가 나며 곡선패턴이 사용되었다. 상의는 뒷길길이가 88cm인 원령우입교령의 장삼을 착용한다.

▷ 초웅(楚雄) 이족바지

바지의 치수는 82*88*59로 흑색의 긴 바지 형태이고, 소재는 면이다. 12cm의 바지허리에 옆트임이 있고 바지의 부리부분에 30cm 크기의 넓은 화변을 <그림 13>과 같이 대어 장식하였다. 가랑이부분은 한복의 큰사폭처럼 바이어스방향으로 되어 착용 시 편리하도록 구성되었다. 상의는 뒷길 97cm길이에 앞길 68cm 길이인 전단후장의 입령대금을 착용하고 뒷길의 의변에 화려한 화변으로 장식하였으며 또한 각종 채색으로 장식한 위요를 두른다.

4. 수이족(水族)바지

수이족의 선조는 낙월인(駱越人)으로 진한(秦漢) 이전부터 수렵생활을 하다가 수·당시대에 화전민 생활로 바꾸었고, 송대부터는 벼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을 문헌에서 볼 수 있다.²⁷⁾ 남자복식 중 청년은 대금(對襟)단의를, 노년은 대금(大襟)장삼을 즐겨 입는다. 단지 한족과 다른 점은 청포로 머리를 두르는 것이다. 하의도 청포의 긴바지를 입으며 초혜나 포혜(布鞋)를 신는다.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색의 대금(大襟)원령 반장삼을 입으며, 품과 소매가 매우 넓다. 청포의 긴바지는 바짓부리에 수화대를 둘러 장식한다. 청대 이전에는 전통의상으로 대금(對襟)원령관수상의와 백습군을 입고 방퇴하고 교침수화(翹尖繡靴)를 신었는데 현재는 주로 장삼과 긴바지 그리고 수화혜(繡花鞋)를 신는다.²⁸⁾ 실측된 남녀바지 2점의 구성을 살펴본다.

▷ 곡정(曲靖) 수이족바지a

바지의 치수는 94.5*106*66으로 흑색의 긴 바지 형태이고, 소재는 면이다. 66cm의 폭으로 다리를 감싸고 가랑이 부분에 36*9길이의 삼각형 무가 <그림 14>와 같이 2개 부착되었다. 허리부분 아래의 좌우로 2개씩 4개의 주름이 앞면에 있고 뒷면에는 주름이 없다. 상의는 66cm 길이의 원령대금단을 착용한다.

▷ 곡정 수이족바지b

바지의 치수는 88*108*66으로 흑색의 긴 바지 형태이고, 소재는 면이다. <그림 15>를 참조하면, 13cm의 넓은 허리ro 구성되었고, 38cm 마루폭과 큰사폭 작은사폭으로 이루어진 한복바지의 전형적인 구성이다. 바짓부리는 0.3cm로 접어박음으로 시접처리를 하였다. 함께 착용하는 상의는 안에는 뒷길 55cm길이의 원령대금단을 입고, 그 위에 뒷길 74cm길이의 화변이 화려하게 장식된 원령우임단을 착용한다.

5. 요족(瑤族)바지

요족의 기원은 진·한시기의 장사(長沙) 무릉만

(武陵蠻)의 일부이며, 남북조시기에 부분적으로 요족을 막요(莫徭)라 칭하였다. 수·당시기에 막요, 송 이후에 대부분 현 지구에서 요(徭)라 칭한다.²⁹⁾ 요족은 주로 산간지역이나 반 산간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임업과 사냥을 겸하며 특히 염직과 자수에 능하다.³⁰⁾

거주지역이 광활하고 그 지계도 많으며, 경제생활의 차이로 복식도 다르다. 요족의 거주 지구는 대개 고산준령으로 수목이 울창하고 풍경이 수려하다. 남자복식은 흑색의 대금(對襟)이나 대금(大襟)상의를 입고 바지는 남색이나 흑색으로 길이에 장·단이 있다. 부녀복식은 치마와 바지양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령(大領)단과의와 장·단이 다른 백습군을 입거나 장·단과의 수화(繡花)장·단의 바지를 입고 수화요대를 두른다. 의변(衣邊)은 각종 화려한 채색 도안으로 자수하며, 위군을 두르고 다리에 방퇴한다.³¹⁾ 운남의 홍하지역에 거주하는 요족의 바지 2점을 실측하였으며 전통형태가 그대로 전승된 모습이다.

▷ 홍하 요족바지a

바지의 치수는 88*93*48로 바짓부리가 좁고, 긴 바지 형태이다. 2장의 마루폭과 4장의 사폭이 한쪽 다리에 해당하며, <그림 16>과 같이 앞중심선을 중심으로 양쪽이 서로 대칭으로 구성되어있다. 바탕은 흑색의 면이며 바지 전체에 자수를 놓아 화려함을 더했다. 여밈시 끈을 이용하며, 앞중심선에 지퍼가 달려있어 착용시 편리함을 주고 있다. 36cm의 옷감으로 마루폭을 이루고, 사폭 중 바짓부리 부분의 사폭은 굽로 재단하고, 밑위부분의 사폭만 2장으로 재단하여 앞뒤를 봉재하였다. 굽로 재단된 부분은 화변을 대어 장식하였고, 흑색 바탕에 장식용 술을 많이 단 입령우임장삼을 함께 착용한다.

▷ 홍하 요족바지b

바지의 치수는 92*76*48으로 긴 바지 형태이고, 바탕색상은 흑색이며, 소재는 면이다. 착용시 오른쪽 20cm의 옆트임에 단추로 여밈을 하며 허리에는 벨트 고리가 있고, 앞면에는 주름이 4개, 뒤에는 2개가 있고, 바지 부리부분에서 33.8cm 정도까지는 기하학문

양의 자수가 있는 화변이 <그림 17>과 같이 부착되어 있으며 곡선패턴을 사용하였다. 상의는 뒷길 길이가 133cm인 흑색대금장삼을 착용한다.

6. 라후족(拉祜族)바지

라후족의 조상은 북방지역에서 수렵생활을 해오다 남하였다고 한다. 前漢때 전서(滇西)와 얼하이(洱海) 부근의 유목민족과 당대 고구려 유민 고선지 장군이 이끌고 온 말갈·선비·고구려 민족의 일부와 섞였다고도 한다. 이들은 1948년 이전까지 다이족 영주의 지배를 받았으므로 그들과 비슷한 습속이 많기는 하나 옛 전통문화를 보면 말갈·북방·고구려 문화의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³²⁾ 라후족 거주지는 산수가 화려하며 지형의 고저가 현저하고 열대·아열대·온대에 걸쳐 있어, 우량이 풍부하여 임산자원과 동물자원이 풍부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원시종교를 신봉하고 있다.

청년은 흑색이나 청색의 무령사금(斜襟)단이나 입령대금(大襟)을 입으며 흑색의 너른바지를 입고, 청포로 머리를 두르고 노인은 흑색의 두건으로 머리를 쓴다. 부녀복식에는 북방계는 흑색의 입령대금(大襟)장포와 긴바지를 입는 양식이 있고, 남쪽으로 이주한 이후 인접한 소수민족의 영향을 받은 단의(短衣)와 통군(筒裙)양식을 갖는 남방계가 있다.³³⁾ 사모(思茅)지역과 난창(瀾滄)지역의 복식을 조사하였다.

▷ 사모 라후족바지

바지의 치수는 90*106*56으로 긴 바지 형태이며 소재는 면이고 색상은 흑색이다. 52cm의 폭의 옷감으로 마루폭을 이루고 가랑이부분에 2장의 삼각형 무가 봉제되어 있으며, 허리부분이 없고, <그림 18>과 같이 바짓부리에 자수가 놓여 있다. 함께 착용하는 상의로 걸은 뒷길길이가 114cm인 장삼과 안에는 뒷길 55cm길이의 원령대금단을 착용하고, 45cm 길이의 각반도 착용한다.

▷ 난창 라후족바지

바지의 치수는 70*122*54로 짧은 바지 형태이고,

색상은 청색이며 소재는 면이다. 60cm 광폭의 한 장으로 다리를 감싸며, 가랑이 부분에는 15.5*15 크기의 삼각형무 2장이 <그림 19>와 같이 빗대어 부착되었다. 봉제선은 씌움로 솔기를 처리하였으며, 바지 부리부분에는 장식선을 부착하였다. 43cm 길이의 각반을 함께 착용하며 상의는 뒷길 138cm 길이의 장삼을 입는다.

7. 나시족(納西族)바지

나시족은 중국 서북지방의 고원 고강인(古羌人)부락이 남쪽으로 이주한 부족으로 천년전부터 현란한 동파(東巴)문화를 창조하여 왔다.³⁴⁾ 나시족 지역은 고지대로 평균해발은 2700m이다. 옥룡산(玉龍山)지역은 식물군락이 다양하여 식물보고라고 불리며 꽃의 세계로도 유명한 곳이다. 또한 지역의 기후차이로 한대·온대·아열대 세종류의 기후가 분포되어 농업·임업·목축업 등이 유리하다.³⁵⁾

남자복식은 한족과 비슷하여, 청년은 청색 대금(對襟)의 중산복(中山服)과 흑색의 긴바지를 입는다. 모자는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즐겨 쓰는 서양의 캡 형태의 전진모(前進帽)를 쓰며 노년층은 중국의 전통 복장인 장삼과 청색의 마패를 입는다. 일부는 형질단추가 있는 입령대금의(對襟衣)나 입령대금의(大襟衣)에 양피나 늑피의 감건을 걸치고, 긴 바지에 허리띠를 맨다. 머리는 단발하고 두파로 두른다.³⁶⁾ 실측된 복식은 여강(麗江) 나시족의 무사(巫師)인 동파복식이다.

▷ 여강(麗江) 나시족바지

바지의 치수는 106*122*67로 좌우가 대칭인 긴 바지 형태이다. 색상은 진한 청색이고, 무늬는 화문이 사방무늬로 직조되어 있으며, 소재는 견이다. 허리는 고무줄을 넣어 처리하였고, 대각선길이가 0.5cm인 마름모 밑바대가 <그림 20>과 같이 덧대어 봉제되었다. 앞뒤의 밑위길이는 5.5cm 길이의 차이만큼 뒷면이 길며 곡선패턴을 사용하였다. 상의는 뒷길 133cm 길이의 장삼을 걸에 입고, 안은 뒷길 50cm 길이의 소매없는 입령대금을 받쳐입고, 동파오불관(五佛冠)을 쓴다.

8. 리수족(傣族)바지

리수족 명칭은 당대 문헌에 율속(栗粟)이라고 나오는데 당시의 오만(烏蠻)의 한 계열로 고대 서북민족인 저강계의 후예로 보고 있으며, 이족이나 나시족과 기원상 긴밀한 관계에 있다. 남자의 교령(交領) 마포장삼은 무구(無扣)이며 수구에 흑변이 있다. 그리고 무릎에 이르는 짧은 바지를 입고 종아리 부분을 감싸며, 머리는 흑·남·홍포로 두른다. 좌측에 감도(砍刀)를 차고 우측에는 전대(箭袋)를 건다. 부녀복식은 의복 색상에 따라 흑·백·화리수(花傣)로 구분한다. 노수(瀟水) 일대의 흑리수 부녀는 중장고(中長褲)를 입고 화려한 장식의 위군을 무릎까지 덮는다. 청포 두건으로 머리를 두르고 산호귀걸이를 한다. 예전의 의복재료는 모두 자신들이 직조한 마포로 만들었으나 현재는 비단·면포 등의 재료도 사용하고 있으며 마포(麻布)는 여전히 리수족이 제일 선호하는 의복재료이다.³⁷⁾ 보산(保山)지역의 리수족 복식을 조사하였다.

▷ 보산 리수족바지

바지의 치수는 61.5*95*64의 흑색의 짧은 면바지이다. 직물의 폭이 69cm로 다리부터 감싸고 가랑이 부분을 사각형의 무로 <그림 21>과 같이 연결하고 있다. 재단은 직선패턴으로 좌우가 같은 형태로 하였으나, 봉제시 좌우가 비대칭으로 연결되었다. 바짓부리의 시접은 5cm로 접어 박았다. 바지허리는 흰색의 이색 천을 이용하여 2.3cm의 허리터널로 구성하고, 여미시 끈을 넣어 이용하도록 하였다. 34cm 길이의 각반을 함께 착용한다. 흑색의 상의에 색동으로 화변식이 되어 있으며, 뒷길은 152cm에 앞길은 58cm인 전단후장의 입령대금장삼을 걸친다. 그 위에 화려한 장식을 한 위요를 두른다.

9. 몽골족(蒙古族)바지

몽골족의 선조를 흉노(匈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흉노와 동일시기인 오항(烏恒)·선비(鮮卑)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원래 몽골은 여러 부락중의 일개 부락의 명칭이었는데 점차적으로 부락

공동체 명칭으로 확대되었다. 목축업은 몽골족 역사상 생존과 발전의 주요 경제수단이며, 부분적으로 공업·수공업·농업·임업 등을 생활수단으로 하였다. 몽골족은 다른 북방민족과 같이 샤만을 숭배하나 대다수가 라마교를 믿고 있다. 몽골족은 일종의 원형 전방(廳房)인 몽골빠오(蒙古包)에 거주하며 특이한 풍미의 음식문화를 갖고 있다. 몽골족은 자연환경과 유목생활의 특징이 잘 살아 있는 각종 복식을 만들어 독특한 민족적 풍모와 정서를 유지하고 있다.³⁸⁾ 운남성에 거주하는 옥계 몽골족의 바지를 조사하였다.

▷ 옥계 몽골족바지

바지의 치수는 87*102*54로 긴 바지 형태이고, 앞 중심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구성이다. 색상은 흑색이고 소재는 면이다. 바지허리는 12cm인 넓은 청색의 다른 천으로 봉제하였고, 다리 안쪽에는 9cm 폭에 55cm길이의 연두색 장식선을 <그림 22>와 같이 덧대었다. 70cm 광폭의 한 장으로 한쪽 다리를 감싸고 있으며, 곡선패턴을 사용하였다. 상의는 뒷길 58cm 길이의 입령대금단의위에 소매가 없는 뒷길 59cm 길이인 조끼형태의 복식을 입고, 그 위에 뒷길 82cm 길이인 원령대금의 흑색 장삼을 입는다.

10. 바이족(白族)바지

바이족은 역사상 일찍이 개화되고 특히 남조 대리국은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여서 각종 의복재료가 풍부하게 생산되었으며, 농업과 목축에 종사한다. 바이족은 특히 백색을 숭상하여 수식을 비롯한 상의와 바지에 모두 백색을 사용하거나 백색에 가까운 천록색(淺綠色)이나 천남색(淺藍色) 등을 사용한다. 남자는 백색 대금(對襟)입령상의의 가장자리에 수화자수하고 감건을 입으며, 백색이나 남색의 긴바지를 입고 백포로 포두한다. 흑색이나 남색 대금(對襟)의 감견은 상의와 매우 대조적이다. 산지의 남자는 각색도안으로 자수한 하포(荷包)를 걸고 다닌다. 부녀복식은 백색의 전단후장(前短後長)의 대금(大襟)친삼과 홍색, 남색, 흑색의 감견을 입고, 백색, 남색의 너른바지를 입는다. 상의의 수구는 넓은 장식띠를 병접한

다.³⁹⁾ 조사된 자료는 대리(大理) 바이족의 바지이다.

▷ 대리 바이족바지

바지의 치수는 92*104*44로 색상은 흰색이고 소재는 합성섬유이다. 허리는 고무줄로 처리하고, 밑위길이는 앞은 27.5cm이고 뒤는 34cm로 약 7cm 정도의 차가 난다. 바짓부리도 앞면은 22cm이고 뒷면은 24cm로 뒤가 2cm 정도 크다. 바지 부리부분에 <그림 23>과 같이 자수로 장식되어 있으며, 곡선패턴이 사용되었다. 함께 착용하는 상의는 소매가 없는 조끼형식의 단의와 뒷길은 88cm, 앞길은 40cm길이의 전단 후장장삼을 착용하고, 장식이 화려한 위요를 두른다.

11. 데앙족(德昂族)바지

데앙족은 운남성 서남부 덕굉 타이(傣)·징퍼족(景頗族) 자치주에 70%정도가 거주하며, 한·진 시대에 복인(濮人)에 속하며, 수당시대의 망충(茫苴)·복자만(朴子蠻)등이 데앙족의 기원과 관계가 있으며 징퍼족·한족·와족·타이족 등과 잡거하고 있다. 데앙족은 평야지대에서는 농업이 주업이고 산악지대에서는 수공업이 주업이다. 창조적 정신이 풍부한 민족이며 나무위에 집을 지어 산다.⁴⁰⁾ 남자는 남색, 흑색 대금(大襟)상의와 흑색의 너른바지를 입고, 백색과 흑색포로 머리를 두르며 포두 양단에는 채색 털실방울로 장식하고, 청년 남자는 커다란 귀걸이와 은항권(銀項圈)을 즐겨 착용하는데, 남자는 문신을 하는 습속이 있다.⁴¹⁾ 덕굉(德宏) 데앙족의 남자바지를 실측 조사하였다.

▷ 덕굉 데앙족바지

바지의 치수는 82*80*74로 흑색의 긴 면바지이다. 한 폭이 50cm이고 길이가 82cm인 2장의 천으로 다리를 감싸고, 다리 안쪽부분은 밑위부분이 26.5cm, 바지 부리부분이 16.5cm의 가로길이와 58cm의 세로길이의 사다리꼴 사폭 2장이 <그림 24>와 같이 가랑이 안쪽에 봉재되었다. 바지의 허리부분은 안으로 0.7cm의 접어박기로 시점을 처리하였고, 밑단은 4cm 접어박기로 단을 정리하였다. 상의는 뒷길 50cm의

우임교령흑색단의를 착용한다.

12. 프미족(普米族)바지

프미족의 선조는 원래 청장고원에 거주하였던 고강인 부락이었으나, 온화한 기후를 따라 남천하여 7세기 전에 서창(西昌)지구의 주요 민족의 하나가 되었다. 오랜 기간 다른 민족인 나시족, 한족(漢族), 이족(彝族) 등과 섞여 살았으므로 복장도 다른 민족들의 것과 같거나 거의 비슷하다. 이는 민족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과 일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일부 민족복이 변천해 가는 과정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⁴²⁾ 농업과 목축을 겸하고 종교는 다신숭배와 조상숭배의 풍속이 있고, 라마교와 도교도 신봉한다. 프미족의 복식은 전통모습도 유지하면서, 남방의 인근민족의 영향도 받았다. 남자복식은 흑·백마포의 우개금(右開襟)단의와 너른바지를 입고, 백양피의 감건을 두른 뒤 방로의 장포를 두른다.⁴³⁾ 여강(麗江)에 거주하는 프미족의 복식에 대해 실측하였다.

▷ 여강 프미족바지

바지의 치수는 105*120*72인 긴 바지로 색상은 흑색이고, 소재는 면이다. 72cm 폭 한 장의 천으로 다리를 감싸고, 가랑이부분에는 16*14크기의 삼각형무가 2장 부착되었다. 바지허리는 폭 11cm의 제천으로 재단하여 <그림 25>와 같이 봉재하였다. 상의는 뒷길 60cm 길이의 사령교임 속저고리와 뒷길 67cm길이의 입령대금단의를 입고, 그 위에 뒷길 131cm 길이의 장삼을 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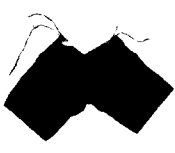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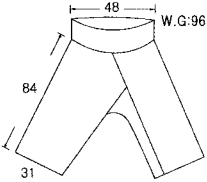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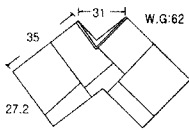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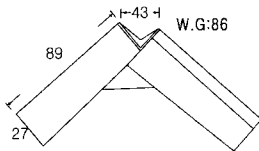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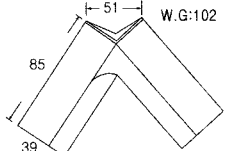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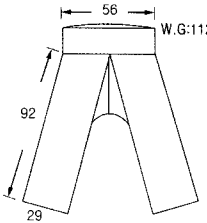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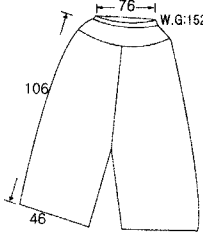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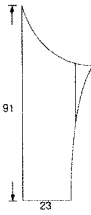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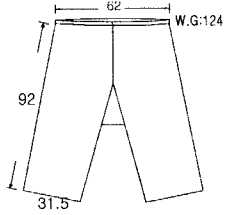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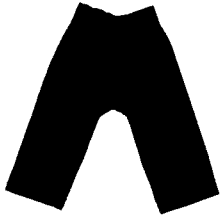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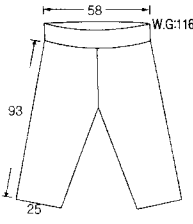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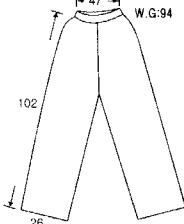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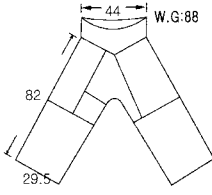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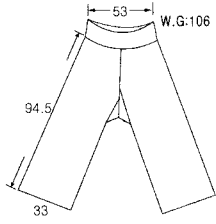
IV. 운남지역 소수민족 바지의 유형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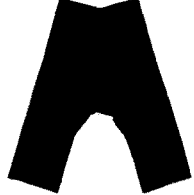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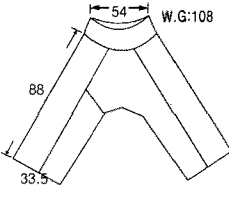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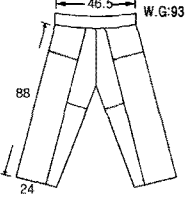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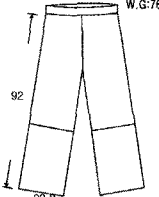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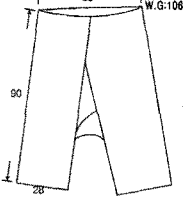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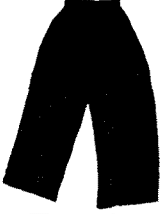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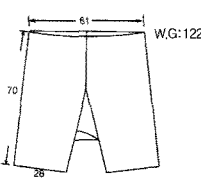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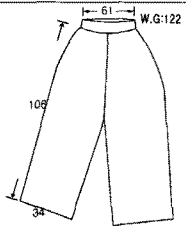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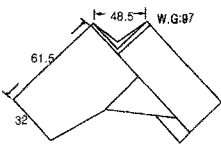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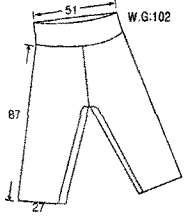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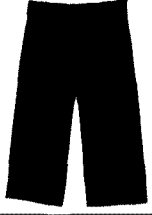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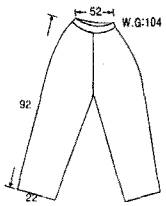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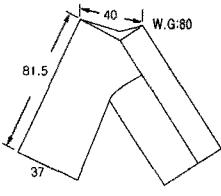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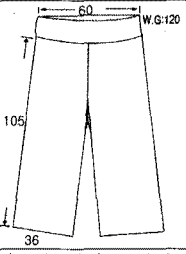
바지형태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박춘순⁴⁴⁾는 대형(帶形)·요권형(腰卷形)·전수형(前垂形)·다리속긋형·방형, 평면형(方形, 平面形)·원통형(圓筒形)·투고형(套袴形)의 7가지로 바지의 기원적 분류를 하였다. 고복남⁴⁵⁾은 한국바지의

중국 운남지역 소수민족 바지 전개

〈표 1〉 운남 소수민족의 바지 사진과 도식

(W.G.: 허리둘레)

			
			
〈그림 3〉 흥하 하니족바지a 및 도식	〈그림 4〉 흥하 하니족바지b 및 도식	〈그림 5〉 흥하 하니족바지c 및 도식	〈그림 6〉 옥계 하니족바지 및 도식
			
			
〈그림 7〉 적경 장족바지a 및 도식	〈그림 8〉 적경 장족바지b 및 도식	〈그림 9〉 장족 신무투고 및 도식	〈그림 10〉 흥하 이족바지a 및 도식
			
			
〈그림 11〉 흥하 이족바지b 및 도식	〈그림 12〉 곤명 이족바지 및 도식	〈그림 13〉 초웅 이족바지 및 도식	〈그림 14〉 곡정 수이족 바지a 및 도식

			
			
〈그림 15〉 곡정 수이쪽 바지b) 및 도식	〈그림 16〉 홍화 요쪽바지a 및 도식	〈그림 17〉 홍하 요쪽바지b 및 도식	〈그림 18〉사모 라후쪽바지 및 도식
			
			
〈그림 19〉 난창 라후쪽바지 및 도식	〈그림 20〉 여강 나시쪽바지 및 도식	〈그림 21〉 보산 리수쪽바지 및 도식	〈그림 22〉 옥계 몽고쪽바지 및 도식
			
			
〈그림 23〉 대리 바이쪽바지 및 도식	〈그림 24〉 덕광 데양쪽바지 및 도식	〈그림 25〉 여강 프미쪽바지 및 도식	

유형분류를 남자바지는 넓은 바지와 좁은 바지로 여자바지는 남자 바지 형과 밀이 절개된 바지, 밀이 막힌 바지로 나눈다. 본고에서는 바지의 구성에 기초하여, 착용법·길이·소재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지 구조에 대해 재단형(직선패턴·곡선패턴)과 무(裳)의 유무를 근거로 하여 소수민족 바지의 유형을 좌우대칭형 즉 무의 유무와 곡선패턴의 이용형태와 좌우비대칭형 즉 직선패턴 형태로 분류하고자 한다.

착용되는 바지의 치수와 형태를 고찰한다. 바지 길이는 무릎길이 수준으로 그 이상을 짧은 바지로, 무릎 아래로 바짓부리가 내려오는 길이이면 긴 바지로 분류한다. 짧은 바지는 길이가 35cm 인 초단고(超短褲)를 착용하는 홍하 하니족과 길이는 60cm와 70cm인 보산 리수족과 난창 라후족의 복식이다. 평면형태상의 바지 길이와 달리 착용시에는 허리위로 올려서 여밈을 하므로 무릎위로 부리가 올라오는 형태가 된다. 짧은 바지는 어로, 농경 등의 생활환경에서 쉽게 나타나는 양식이며, 각반을 반드시 함께 착용한다. 긴 바지는 바지 길이가 85cm-107cm 까지의 길이수준에 이르고, 산악지역에서 생활하는 민족이 착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장족신무용 투고는 길이가 발목까지 닿지만 둔부 부분이 없는 구성이다. 바지형태는 <표 2>와 같이 넓은 바지와 좁은 바지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유형의 요인으로는 바지통과 바짓부리의 차로 고찰한다. 바지통과 바짓부리가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넓은 바지로, 바짓부리로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경우 좁은 바지로 분류하였다. 넓은

바지는 바짓부리가 50cm 이상의 크기로 하니족·적경 장족·초웅 이족·곡정 수이족·라후족·나시족·리수족·프미족 등이 이에 속하고, 좁은 바지는 50cm 이하의 바지의 폭으로서 홍하 요족·곤명 이족·바이족·몽골족·홍하 이족·장족의 신무용 투고 등으로 분류된다. 대부분 좁은 바지에는 바짓부리에 덧단형식의 화변이 장식되어 각반이 착용되지 않고, 넓은 바지는 화려한 장식을 한 각반을 착용한다.

패턴의 구성과 무형태의 여부로 바지형태를 구분하여 보면, 패턴의 구성법 중 <표 3>과 같이 직선패턴과 곡선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선패턴은 바지의 패턴이 직선만을 이용하여 구성된다. 하니족·장족·홍하 이족·초웅 이족·홍하 요족·수이족·라후족·데양족·리수족·프미족이 직선패턴을 이용하였다. 곡선패턴은 바지의 패턴에서 밀위 앞 뒤 중심선에 곡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적경 장족·장족 신무투고·홍하 이족·곤명 이족·홍하 요족·나시족·몽골족·바이족이 이용하였다. 패턴의 구성은 직물의 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직물의 발달과 함께 패턴의 형태가 다양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광폭 직물의 발달로 삼각형무, 사각형무가 쇠퇴하고 점차 작은사폭, 큰사폭 등도 광폭으로 대체되었다. 다만 기능이 여전히 요구되는 성격의 무는 남게 되었으리라 보인다. 곡선패턴이 나타나는 지역은 교통과 문화의 접경지역으로 일찍이 주변국과의 교류로 직물이 발달할 수 있는 요인이 되어 곡선패턴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직선패턴이 남아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표 2> 바지형태에 대한 유형분류

유형분류	소수민족 명칭
좁은 바지	장족신무투고·홍하 하니족b·홍하 이족a·홍하 요족a·홍하 요족b·곤명 이족·바이족·몽골족
넓은 바지	홍하 하니족a·홍하 하니족c·옥계 하니족·홍하 이족b·초웅 이족·프미족·나시족·리수족·적경 장족a·적경 장족b·곡정 수이족a·곡정 수이족b·사모 라후족·난창 라후족·데양족

<표 3> 바지 제작 중 패턴의 이용된 선에 의한 분류

유형분류	소수민족 명칭
직선패턴	장족 신무투고·홍하 하니족a·홍하 하니족b·홍하 하니족c·옥계 하니족·초웅 이족·리수족·사모 라후족·적경 장족a·홍하 이족a·홍하 요족a·데양족·프미족·곡정 수이족a·곡정 수이족b·난창 라후족
곡선패턴	적경 장족b·홍하 이족b·곤명 이족·홍하 요족b·바이족·나시족·몽골족

〈표 4〉 무의 형태 여부에 의한 분류

유형분류	소수민족 명칭
삼각형무	사모 라후족·적경 장족a·곡정 수이족b·난창 라후족·프미족
사각형무	홍하 하니족a·홍하 하니족b·홍하 하니족c·옥계 하니족·홍하 이족a·곡정 수이족a·데양족·리수족·홍하 이족a
오각형무	적경 장족a·홍하 요족a
무가 없음	장족 신무투고·적경 장족b·홍하 이족b·곤명 이족·홍하 요족b·바이족·나시족·몽골족

〈표 5〉 바지의 형태 중 대칭에 의한 분류

유형분류	소수민족 명칭
좌우비대칭형	홍하 하니족a·홍하 하니족b·홍하 하니족c·옥계 하니족·초웅 이족·곡정 수이족b·사모 라후족·데양족·리수족
좌우대칭형	장족 신무투고·적경 장족a·적경장족b·홍하 이족a·홍하 이족b·홍하 요족a·홍하요족b·곡정수이족a·난창 라후족·프미족·곤명 이족·바이족·나시족·몽골족

로 문화단절이 지속되어 민족의 고유생활방식으로 바지의 원시적 형태를 유지하여 기원적 바지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무의 유무와 무의 형태로 분류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직선패턴을 이용한 바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무가 존재하고, 무가 사용되지 않은 바지는 대부분 곡선패턴을 이용한 바지류이다.

바지의 형태중 밑위 앞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형과 비대칭형으로 분류하면 〈표 5〉와 같고, 좌우대칭형으로는 장족·이족·수이족·요족·난창 라후족·나시족·몽골족·바이족·프미족이 이에 속하고, 좌우비대칭형은 하니족·초웅 이족·수이족·사모 라후족·데양족·리수족으로 분류 된다. 또한 무의 유무로 분류하면 무가 존재하는 민족은 하니족·장족·이족·수이족·요족·라후족·리수족·데양족·프미족이고, 무가 없이 구성된 바지를 착용하는 민족은 하니족·장족·이족·나시족·몽골족이다.

소수민족의 복식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복식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화변으로 그 기능은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 글자가 없는 민족은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는 기능이 있고, 소수민족 각각의 심미안으로 장식의 기능도 존재하며, 각종 의례시 민족의 중요한 상징을 표현하는 정체성 기능도 있다. 조사된 바지의 화변은 〈표 6〉과 같이 화변이 있는 민족은 이족·요족·라후족·몽골족·바이족으로, 길이는 5cm

에서부터 바지 전체에 길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길이가 보인다. 화변의 문양은 기하학문양에서 사실적인 문양까지 다양하며, 색상도 흑색의 바탕에 화려함을 더하도록 홍·백·황·초록·청·주황 등의 원색을 주로 사용하고, 양식으로는 주로 자수가 이용되지만, 몽골족과 이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색의 다른 천을 이용하여 덧대기도 한다. 화변이 부착되어진 바지는 의례복이나 외출복에 많이 사용되어진다.

바지의 착용시 여밈방법으로 유형을 분류한다. 바지를 여미는 방법으로 넓은 허리를 포개어 접고 끈으로 묶는 방법과 1cm내외의 가는 끈을 허리둘레의 터널에 넣어, 끈을 조여서 착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허리둘레에 고무줄을 넣은 경우와 트임이 있어 단추나 지퍼를 이용하는 여밈방법이 있다. 허리의 여유분을 겹쳐 접어서 끈으로 여미는 방법은 하니족·장족·홍하 이족·초웅 이족·수이족·라후족·몽골족·데양족·프미족이 해당되고, 바지허리에 끈이 부착되어 당겨서 여미는 방법은 하니족(초단고)·장족 신무투고에서 보인다. 허리에 터널식으로 구성하고 여밈시 끈을 넣어 줄을 조여서 착용하는 민족은 옥계 하니족·홍하 이족·리수족이고, 고무줄을 이용하여 여미는 방법은 곤명 이족·나시족·바이족에서 보이고, 트임에 단추나 지퍼를 이용하는 여밈방법은 요족에서 발견된다. 함께 착용되어지는 상의는 바지의 화변이 가려지지 않는 정도의 길이를 유지하며

<표 6> 바지에 이용된 화변의 종류

소수민족 명칭	사모 라후족	난창 라후족	홍하 이족	홍하 이족	곤명 이족
그림					
위치	바지 밑단	바지 밑단	바지 하단	바지 밑단	바지 하단
색상(바탕)	흑색	청색	흑색	흑색	분홍색
색상(화변)	홍색	홍색·흰색	홍색·청색·주황·보라색	초록색	홍색·청색·황색·연두색
양식	자수	파이핑	자수	덧단	자수
소수민족 명칭	초옹 이족	홍하 요족	홍하 요족	대리 바이족	육계 몽고족
그림					
위치	바지 밑단	바지 밑단	바지 전체	바지 하단	바지 배례
색상(바탕)	흑색	흑색	흑색	흰색	흑색
색상(화변)	홍색·주황·연두색·흰색	주황·흰색·청색·자주색	홍색·황색·흰색·주황·연두색 등	홍색·황색·연두색	연두색
양식	자수	직조	직조	자수	덧단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식은 기능적인 구조를 갖는 구성위치에서 그 기능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점차 기법이 장식적으로 전개된다.

소수민족 복식의 소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성 재료인 면, 마섬유가 주로 이용되며, 색상은 주로 흑색이 이용되지만 소재에 따라 삼베 소재의 소재와 견섬유의 청색과 자주색, 합섬섬유의 다양한 색 즉 분홍, 흰색 및 연두색 등이 사용 되어졌다. 주로 사용되는 흑색의 염색은 식물채집이 용이한 쪽을 이용한다. 쪽염을 반복하여 염색하면 푸른빛이 도는 흑색이 된다. 직물은 옷감의 폭이 35cm의 작은 폭과 60cm~70cm 에 이르는 광폭에 무늬없는 옷감이 주로 사용되었다. 수공예품으로 면직물을 제작하므로 허리폭에 가까운 좁은 폭과 실의 굵기는 굵고 표면도 거칠은 두꺼운 면이 제작된다. 이들 무늬를 살펴보면 신무(神巫)용 투고의 견섬유에서 원화문(圓花紋), 장족의 인조견에서 매화와 죽순문양, 나시족의 견섬유에서 화문(花紋)이 사방무늬로 직조되었다. 민무늬의 면섬유는 대부분 화변으로 무늬를 장식

하고 있다.

V. 결론

의복문화는 유동적이어서 타문화와의 접변 중에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운남의 지역적 특성은, 하의의 원시적인 모습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하여 전개되는 제 형태의 구조를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최초로 바지를 착용한 스키타이(scythian)인들의 복식이 흉노와 동호족을 통하여 한국, 중국, 일본에 전파되어 동양 바지의 기본이 되었다. 소수민족의 복식은 생활문화상 바지의 원형을 원시형태로 보존 계승하여 바지의 기원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동일 소수민족 내부에서도 그 지류가 다르면 복식관습이 같지 않아 다양한 복식문화를 갖고 있다. 또한 생산방식의 환경적 차이와 문화적 요인도 그 다양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수민족 복식은 동북아시아의 복식문화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을 담고 있다.

바지의 용도로 고찰하면 긴 바지는 일반 생활이나 예식의 성장시에 나타나는 복장이다. 짧은 바지인 흥하하족의 초단고는 작업복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복식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해녀복인 물소중이와 형태가 비슷하다. <그림 1>과 같이 운남지역에서 조사된 바지를 고찰하면 짧은 바지는 지역적으로 저지대 생활환경에서 나타나는 양식이고, 긴 바지는 산악지역에서 생활하는 각각의 민족이 착용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적 환경과 생산활동의 차이로 대변될 수 있다. 하니족과 리수족 및 라후족의 짧은 바지는 단독으로 입혀진 것은 아니며 각반이 함께 착용되어진다. 그리하여 착용 상태는 다리가 보이지 않는다. 다리를 보이는 것이 예의에 벗어나는 행위로 여겨지는 한족의 유교사상이 수용되기도 하였으리라 보이며, 근접 지역의 한족과 상호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패턴의 구성방법으로 바지의 유형전개를 고찰하면, 패턴의 구성은 직물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가 전개되고, 특히 밑위 앞 뒤중심선의 슬렉스패턴과 같이 곡선을 이용한 것은 직물의 광폭화는 물론 서양복 바지의 수용 잔류이다. 이러한 지역은 교통과 문화의 접변이 용이한 지역이며, 직선패턴이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민족의 고유생활방식으로 바지의 원시적 형태를 유지하여 기원적 바지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 직선패턴에서 곡선패턴으로 전개되며, 구성상에서 무의 유무와 앞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대칭형과 비대칭형을 분석하여 분류하여 보면, 직선패턴일 경우 무가 반드시 존재하며, 무의 형태도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좌우 비대칭형에서 대칭형으로 전개되었다. 소수민족의 복식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복식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화변이다. 다양한 길이와 문양 및 색상으로 흑색의 바탕에 화려함을 주고 있다. 화변이 부착되어진 바지는 의례복이나 외출복에 많이 사용되어진다. 직물에 무늬가 없는 면섬유는 대부분 화변으로 무늬를 장식하고 바지의 소재는 면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상의 실증적 자료는 바지전개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가 되었으며, 운남의 모든 민족 바지를 추후 조사 연구하여 바지의 기원 및 계보를 밝히고, 인류 문화의 유형을 복식고찰의 관점으로 고찰하여 풍속,

지리, 경제생산 등 타 분야의 기초적 자료로서의 활용성을 기대하여 본다.

참고문헌

- 1) 박춘순, 조우현 (2002). *중국 소수민족 복식*. 서울: 민속원, p. 246.
- 2) 문명수 (2003). *중국 윈남성 선교전략 연구*.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pp. 16-17.
- 3)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03). *2003전통문화국제학술회의 및 아시아민족문화 EXPO*.
- 4) 류재현 (1999). *중국역사지리*. 문학과 지성사, p. 291.
- 5) 劉忠傑 외 (1996). *中國地理*. 白山出版社, p. 454.
- 6) 필자가 직접 작성하였음.
- 7) 조우현, 박춘순 (2010). *세계민족복식*. 서울: 민속원, pp. 21-22.
- 8) 小川安郎 (1979). *민족복식의 체계*. 의생활 연구회, p. 25.
- 9) 박춘순 (1998). *바지의 문화사*. 서울: 민속원, pp. 29-30.
- 10) 조규화 (1979). 바지의 기원 및 그 교류. *국민대학교 논문집*, 16, p. 217.
- 11) 박경자, 이운경 (1990). 東北 亞細亞 袴의 發生 및 傳播에 關한 研究. *복식*, 15, p. 180.
- 12) 김인숙 (1989). 中國 바지 形制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13(3), p. 270.
- 13) 杉本正年 (1979).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東京: 文化出版局, p. 238.
- 14) 加藤定子 (2002). *中央코어시아古代衣服의 研究*. 東京: 源流社, pp. 141-145.
- 15) 김인숙. *앞의 책*, p. 273.
- 16) Henny, Harald, Hansen (1950). *Mongol costumes*. etnografisk bamling, pp. 106-107.
- 17) 박춘순 (1991). *바지고-바지형태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과정에 관하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79-188.
- 18)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 17.
- 19) 2003년 7월에 필자가 직접 촬영하고 도식화를 그렸음.
- 20) 소황옥, 김양희 (2008). *중국소수민족복식*. 서울: 경춘사, pp. 122-123.
- 21)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 131.
- 22) 바지길이*허리너비*바짓부리의 순서로(84*97*62)이며, cm는 생략하여 표기한다.
- 23) 무 둘레의 변 길이이며, cm는 생략하여 표기한다.
- 24)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p. 101-103.
- 25) *위의 책*, p. 117.
- 26) *위의 책*, pp. 123-127.
- 27) 조오순 (1996). 중국서남지역 소수민족의 복식. *디자인연구*, 1, p. 133.
- 28)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p. 186-187.
- 29) *위의 책*, p. 197.
- 30) 소황옥, 김양희. *앞의 책*, pp. 205-206.
- 31)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p. 197-199.

- 32) 조오순. *앞의 책*, p. 136.
- 33)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p. 143-145.
- 34) *위의 책*, p. 145.
- 35) 소황옥, 김양희. *앞의 책*, p. 146.
- 36)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 146.
- 37) *위의 책*, pp. 137-139.
- 38) *위의 책*, pp. 35-36.
- 39) *위의 책*, pp. 128-130.
- 40) 조오순. *앞의 책*, p. 139.
- 41)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 162.
- 42) 조오순. *앞의 책*, p. 144.
- 43) 박춘순, 조우현. *앞의 책*, p. 157.
- 44) 박춘순 (1991). *앞의 책*, pp. 8-11.
- 45) 고복남 (1984). *한국의복의 유형과 양식에 대한 분석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31-335.